

4월에 일본에 오면서 앞으로의 일본 생활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과 불안도 많았습니다. 약 6개월 동안 타지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일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에는 여행으로 여러 번 와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일본 생활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에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생 수업 7과목과 전문 과목 1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원래는 복수전공인 커뮤니케이션콘텐츠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오차대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오시는 분들께는 유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전문 과목도 함께 수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대학 생활을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년 동안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日本事情演習ⅢA」와 「日本語演習ⅢA」였습니다. 「日本事情演習ⅢA」에서는 일본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일본의 취업 환경과 취업 활동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분석, カクチカ, 지원동기를 직접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일본 취업을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日本語演習ⅢA」는 일본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수업으로, 독해력과 작문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일본 원서를 처음 읽어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세로읽기와 어려운 한자 때문에 짧은 글을 읽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독해력이 향상된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 학기 동안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수업이었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수업 외 활동으로는 동아리와 문화 체험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문화 체험 교실에서는 꽃꽂이, 유카타 체험, 당고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추억으

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께도 문화 체험 교실에는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에 오기 전 계획했던 대로 교환학생 브이로그도 제작했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추억을 남기고 영상 제작 실력을 키워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학 기간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블로그나 영상 제작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억을 남겨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이번 유학을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